

추념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광복 50주년이 되는 금년 한 해동안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여러가지 뜻깊은 광복 행사를 많이 개최하신줄 압니다. 금년은 또한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선생이 서거하신지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고하선생은 1890년에 출생하시어 해방되던 해인 1945년 말에 서거하셨으므로 55년간의 짧은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하선생의 길지 않은 생애와 업적은 해방 전후로 나누어서 보아야 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일제 35년동안에는 중앙학교교장으로서 학교 숙직실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옹립하고, 종교단체간의 제휴를 이룩하며, 학생들을 조직하여 3.1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1년반의 옥고를 치르신 후에는 그 암담한 일제의 강점기간동안 줄기차게 동아일보를 민족역량결집과 국내독립항쟁의 총본산으로 삼아 이나라와 겨레를 이끌었습니다. 일제의 암흑기간동안 수많은 선열들이 중국에서, 미주에서, 그리고 만주와 시베리아 별판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혹독한 압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시종일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이 질곡 속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간 중심적 지도자는 단연 고하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하선생은 1925년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민족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미국에 머물러 같이 독립운동을 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해외는 선생님이 맡으시면 저는 국내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를 거절하고 귀국하여 평생의 동지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선생과 굳게 손을 잡고 동아일보를 짊어진 채 국내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내신 분입니다. 3.1운동이 있었기에 중국에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고,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면서 투쟁한 고귀한 독립운동도 국내와의 연결과 협동과 지원이 없었던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방직전 일제의 정권인수제의를 대하여 선생은 정권은 우리 국민만이 줄 수 있을 뿐 국권을 강탈한 자로부터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자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지하고 해외에서 돌아온 애국지사후원에 주력하면서도, 정당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입장에 서서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하였으나 곧 동지들의 권유로 한국민민주당의 수석총무로 추대되었고, 얼마후에는 중간된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국론통일에 노력하였습니다. 고하선생은 이처럼 해방정국의 중심에 우뚝 선 채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을 이끌면서 불과 넉달 반의 짧은 기간동안 자유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한 나라세우기와 겨레사랑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다가 불의의 흉탄에 쓰러지셨습니다. 고하선생은 젊은 시절 손문(孫文)이 제창한 삼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권회복을 위하여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겨레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신봉하였으며,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민생주의를 추구하였고 이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독립을 위한 민문주의를 구국과 독립의 사상적 기초로 삼아 투쟁하셨습니다.

고하선생이 서거하자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선생과 창랑 장택상(滄浪 張澤相)선생은 충무공이후 우리 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고 애석해 하면서 충무공 시대에는 무능한대로 정부가 있었지만 고하는 오직 교육과 언론기관만을 짊어지고 고군분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고하의 장례식에서 언더우드목사는 미국인이 링컨을 생각하듯 한국인은 날이 갈수록 고하선생을 추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생께서 생전에 갖추셨던 역사의 진운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 굳은 지조와 불굴의 투지, 웅대한 포부와 경세방략, 비범한 통솔력과 여러 사람을 압도하는 위엄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꼭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여 선생이 바라시던 그대로 힘있고 정의로운 일등국가를 건설할 막중한 소명을 선생의 영전에서 머리숙여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고하선생이 불의에 가신 이래 두번의 천묘장의절차를 거쳐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 만년유택을 마련해드렸고 1983년에는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선생의 동상이 우뚝 섰습니다. 고하탄신 100주년이 되는 1990년에는 전기, 평전 및 문집등 3권으로 된 고하전집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49주기에 즈음하여 재단법인형태의 기념사업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생의 높이신 유훈과 거룩하신 업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